Korean J Relig Educ 종교교육학연구
Vol. 86, pp. 137-155, September 2026 pISSN 1229-6627
https://doi.org/10.58601/kjre.2026.09.30.07 eISSN 2672-1767

The Reconstruction of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Well-Dying in Later Life: Focusing on Death Preparation and Christian Hope

Kwangje Ko*
Kos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reexamines well-dying in later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and proposes directions for Christian death education for older adults grounded in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person and in the hope of resurrection.

[Contents] The study reviews psychological and social discussions of well-dying, examines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death through ars moriendi and eschatological hope, and derives educational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the local church.

[Conclusions] First, well-dying in later life is not confined to preparing for the moment of dying; it is a task of Christian education that helps older adults interpret life and death within faith and internalize hope beyond death. Second, Christian death education should integrate four principles: from avoiding death to recognizing it, from life review to reconstructing meaning in faith, from relational rupture to reconciliation and community, and from death anxiety to the hope of resurrection. Third, education for older adults should be structured along five axes: death education programs, life review and faith narratives, intergenerational death preparation, integration with worship and biblical instruction, and cooperation among pastors, Christian educators, and counselors.

[Keywords] Well-dying in later life, Death preparation, Christian death education, Eschatological hope, Christian education for older adults

* **Corresponding author** Kwangje Ko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Kosin University)
E-mail : cohenkj@kos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노년기 웰다잉을 위한 기독교 죽음교육의 재구성: 죽음준비와 기독교적 소망을 중심으로

고광제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외래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부활의 소망에 기초하여 노년기 기독교 죽음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첫째,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에 관한 심리, 사회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죽음의 기술 전통과 종말론적 소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노인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기독교 죽음교육의 원리와 교회 노인교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웰다잉은 죽음에 관한 정보의 습득이나 임종 준비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죽음 이후의 소망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노년기 기독교 죽음교육은 죽음 회피에서 죽음 인식으로, 생애회고에서 신앙적 의미재구성으로, 관계적 단절에서 화해와 공동체성으로, 죽음불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네 원리를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셋째, 교회의 노인교육은 죽음교육 프로그램, 생애회고와 신앙 이야기, 세대를 통합하는 죽음준비, 예배와 성경교육의 연계, 목회자와 기독교교육자와 상담자의 협력이라는 다섯 축으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노년기 웰다잉, 죽음준비, 기독교 죽음교육, 종말론적 소망, 노인 기독교교육

Received August 15, 2026 / **Revised** September 09, 2026 / **Accepted** September 09, 2026

Ⅰ. 서론

한국 사회는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게 되면서, 죽음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 되었다(Statistics Korea, 2025). 그러나 노년기의 죽음은 여전히 불안과 고립, 준비 부족 가운데 경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죽음의 의료화와 장례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기보다 가능하면 회피해야 할 사건처럼 받아들여져 왔고(Lee, 2017), 그 결과 많은 노인이 자신의 죽음을 충분히 성찰하거나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준비교육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Song & Yoo, 2011; Kim & Song, 2013),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고해 왔다(Oh & Kim, 2009). 기독교교육학 영역에서도 논의가 확장되어, 이은성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당면 과제를 정리하였고(Lee, 2014), 김난예는 교회가 죽음과 죽어감에 공동체적으로 동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Kim, 2019), 윤옥한은 죽음 묵상을 영적 훈련으로 개념화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Yoon, 2026).

본 학회지에서도 죽음교육과 종교의 관계를 묻는 논의가 일찍부터 축적되었다. 베커(C. Becker)는 학교 죽음교육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자리를 검토하였고(Becker, 2004), 이재영은 청소년의 죽음 인식과 종교교육의 과제를 다루었다(Lee, 2004). 노년기를 직접 다룬 논의로는 김에셀의 연구가 있다. 그는 조앤 에릭슨(J. Erikson)과 조이스 앤 머서(J. A. Mercer)의 노인 이해에 기대어 노년기를 목회의 수혜자나 단편적 지혜자로 한정하지 않고 고유한 소명을 지닌 시기로 재조명하였으며, 이러한 이해가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신앙공동체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임을 논하였다(Kim, 2024). 다만 이 논의가 노년기의 소명과 역할, 곧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 마지막 국면인 죽음과 죽음준비를 기독교교육의 고유한 과제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와 더불어 세 가지 공백이 남아 있다. 첫째, 죽음교육, 죽음준비교육, 웰다잉교육 등의 용어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각 교육이 겨냥하는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게 진술되지 못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 연구의 상당수가 죽음불안의 감소라는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온 탓에, 노년기 죽음교육이 지향해야 할 신학적 목적과 교육적 원리 자체를 묻는 작업은 소홀하였다. 셋째, 웰다잉 개념이 제도화 과정에서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흐름과, 죽음을 비인격적 물질의 흐름으로 재서술하는 최근의 사상적 전환에 기독교교육이 어떤 인간 이해로 응답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회의 노인교육 현장에서는 세속 웰다잉 담론의 전제를 비판적 성찰 없이 수용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해명하지 못한 채 막

연히 거부하는 두 태도가 공존해 왔다.

한편 노년기 웰다잉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노인의 웰다잉 인식이 종교활동 참여 및 죽음준비와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개신교와 천주교 노인이 무종교 노인보다 죽음준비와 웰다잉 인식 수준에서 일관되게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Ko, 2026: 98-106). 다만 이러한 관련성은 그 자체로 교육의 효과나 인과적 영향을 입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신앙공동체 참여가 노년기의 죽음 이해와 준비에 의미 있게 결합되어 있다면, 기독교교육은 그 결합을 어떤 신학적, 교육적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형성해 갈 것인가? 본 연구는 이 물음을 이어받는 후속 연구로 설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교육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죽음 이해의 사상적 흐름을 검토한 위에서,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부활의 소망에 기초하여 노년기 기독교 죽음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죽음교육 관련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고 구분되며,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는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오늘의 죽음 담론과의 대화 속에서 노년기 죽음과 웰다잉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기존 기독교 죽음교육 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노년기 웰다잉을 위한 기독교 죽음교육의 목표와 실천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중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나 임종 준비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신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죽음 이후의 소망을 내면화하도록 돕는 기독교교육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에 기초한 신학적, 교육학적 고찰을 채택하며, 문헌은 세 층위로 선정하였다. 첫째 층위는 노년학, 사회복지학, 법학 분야에서 ‘웰다잉’, ‘죽음준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요어로 삼은 국내 등재지 논문 가운데 좋은 죽음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둘째 층위는 죽음의 기술(ars moriendi) 전통과 종말론적 소망을 다룬 영성사 및 조직신학 문헌과 이를 분석한 국내 이차 연구이다. 셋째 층위는 기독교교육학과 종교교육학 분야에서 죽음교육과 노인교육을 다룬 등재지 논문으로, 본 학회지에 축적된 논의를 우선 포함하였다. 분석은 각 문헌이 전제하는 좋은 죽음의 기준, 인간 이해, 교육의 목적을 추출하여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드러난 공백을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재구성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국내 기독교 죽음교육 논의는 강조점에 따라 유형화하여 검토하였으

며, 이 유형화는 검토 문헌의 경향을 정리한 분석틀이다. 본 연구는 죽음교육을 임종 대비의 기능적 훈련이 아니라 노년기 신앙 형성(formation)의 한 국면으로 재정위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구별된다.

Ⅱ.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에 대한 이해

1. 죽음교육 관련 용어의 정의와 구분

논의에 앞서 이 영역에서 혼용되는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은 죽음과 죽어감, 상실과 사별에 관한 지식과 태도, 대처 역량을 다루는 교육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가장 넓은 범주다(Wass, 2004). 죽음준비교육(death preparation education)은 그 하위 영역으로, 학습자 자신의 죽음에 초점을 두어 실무적 준비와 죽음 수용 태도의 형성을 다룬다. 웰다잉은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담론적 개념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연명의료결정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Cho, 2023). 따라서 웰다잉교육은 죽음준비교육과 상당 부분 겹치되 좋은 죽음의 기준 자체를 묻는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노년기 웰다잉교육은 이 물음을 생애의 회고와 통합이라는 노년기의 발달과업 위에서 다루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나 특정 행동의 산출이 아니라 인지, 정서, 관계, 실천을 포괄하는 신앙 형성(formation)의 과정을 뜻한다. 이 규정 위에서 기독교 죽음교육은 죽음을 창조와 유한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신앙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기독교상담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실과 우울, 관계적 상처의 완화와 치유를 일차 목적으로 삼는 조력 활동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두 활동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중첩되는 실천이지만 본 연구의 구분은 일차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노년기 죽음의 자리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Ⅴ장의 협력 구조 제안에서 다시 다룬다.

2. 죽음 이해의 사상적 흐름과 신유물론적 전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시대와 함께 변해 왔다. 아리에스(P. Ariès)에 따르면 서구의 죽음은 공동체가 함께 지켜보는 ‘길들여진 죽음’에서 개인에게 귀속된 죽음을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병원과 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일상의 언어에서 지워지는 ‘금기된 죽음’으로 이행하였다(Ariès, 1974). 철학의 층위에서는 하이데거(M. Heidegger)가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하여, 죽음을 개인의 실존이 감당할 사건으로 이해하는 20세기의 지형을 마련하였다(Heidegger, 1962).

죽음의 개인화와 금기화라는 이 조건이 오늘의 웰다잉 담론과 죽음교육이 서 있는 자리다.

최근의 신유물론(new materialism)과 포스트휴먼 담론은 바로 이 개인화된 죽음 이해 자체를 문제 삼는다. 브라이도티(R. Braidotti)는 죽음을 개인의 목적론적 종결로 보는 서구적 사유를 비판하면서, 생명을 개별 주체를 넘어서는 비인격적 힘인 조에(zoe)로 재서술하고 죽음을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다른 형식으로 이해한다(Braidotti, 2013). 이 관점은 죽음의 공포가 개체를 절대화하는 근대적 주체 이해와 결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기결정 담론의 주체 이해를 근본에서 비판하는 가장 급진적인 목소리에 해당한다.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이 전환과 만나고 또 갈라진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소유하지 않으며 죽음이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통찰은, 인간을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로 이해해 온 기독교 전통과 겹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체의 소멸을 존재의 조건으로 긍정하는 재서술은 죽어 가는 '이 사람'의 고유성과 사별의 슬픔을 붙들 언어를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보존되는 미래를 말하는 부활의 소망과의 차이는 Ⅲ장에서 다시 다룬다.

3. 웰다잉 담론의 두 흐름

웰다잉은 좋은 죽음을 가리키는 폭넓은 말로 쓰이지만, 그 안에는 결이 다른 두 흐름이 공존한다. 한편에는 죽음을 관계와 의미, 영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흐름이 있다. 이들은 좋은 죽음을 신체적 고통의 부재만이 아니라 관계의 화해, 삶의 의미 발견, 영적 평안의 성취로 규정하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전인적 돌봄 전통과 맞닿아 있다. 이 전통은 죽어 가는 이의 고통을 신체적 통증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을 포괄하는 전인적 현실로 이해해 왔으며, 국내 실천신학 논의에서도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Kwon, 2017).

다른 한편에는 웰다잉이 법적, 제도적 언어로 번역되는 국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온 흐름, 곧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좋은 죽음의 핵심 축으로 삼는 흐름이 있다. 조은희는 웰다잉을 '존엄하고 행복한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하며 조력존엄사법을 인간 존엄성의 확장으로 해석하고(Cho, 2023; Cho, 2025), 김학태는 그 법윤리적 정당성을 환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에서 찾으며(Kim, 2026), 엄순영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한다(Eom, 2025). 이 흐름을 관통하는 전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흐름의 통찰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죽음을 의료 기술에 내맡긴 채 방치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자기결정 담론은 인간 존엄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

다. 그러나 세속 학문 내부에서도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제기되어 왔다. 최혜지는 푸코(M. Foucault)의 생명정치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하나의 통치성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H. J. Choi, 2024), 이소영 역시 '죽을 권리' 담론이 권력과 통치의 산물일 수 있음을 제기한다(Lee, 2020). 특히 자율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이나 치매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의 언어는 실제 필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Kang, 2024).

다만 두 흐름을 배타적 진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기결정을 강조하는 논의 안에도 관계와 돌봄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며, 영성을 강조하는 논의 역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본 연구가 문제 삼는 것은 자기결정이라는 가치 자체가 아니라, 제도화 국면에서 그것이 좋은 죽음의 유일한 기준으로 절대화되는 경향이다. 좋은 죽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죽음교육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은 죽음이 '잘 통제된 죽음'이라면 죽음교육은 결정의 절차와 정보를 전달하는 훈련이 되고, '의미가 회복되고 관계가 화해된 죽음'이라면 죽음교육은 생애의 해석과 관계의 재구성을 돕는 형성의 과정이 된다.

4. 노년기 죽음불안과 죽음준비

노년기는 배우자나 가까운 이의 죽음,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의 축소를 통해 어느 생애 단계보다 죽음의 현실을 자주 마주하는 시기다. 그러나 죽음에 자주 노출된다는 사실이 곧 죽음불안이 가장 크다는 뜻은 아니다. 러삭 등(Russac et al., 2007)에 따르면 죽음불안은 20대에 정점에 이른 뒤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노년기의 수준은 청년기보다 낮으며, 포트너와 나이마이어(Fortner & Neimeyer, 1999)가 49편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노인의 죽음불안을 좌우하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낮은 자아통합과 신체적, 심리적 문제였다. 따라서 노년기 죽음교육은 불안의 감소 자체보다 생애의 통합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죽음불안과 구별되는 노년기 우울은 상실의 누적과 함께 깊어져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리기 쉽고(Oh & Kim, 2009), 실천신학적 응답을 요청하는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Ha, 2019).

죽음준비는 이러한 불안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죽음준비는 유언장 작성, 재산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같은 실무적 행위로 이해되지만, 그 범위는 더 넓다. 지나온 시간을 되짚고, 정리하지 못한 관계를 마주하며, 삶의 마지막 국면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정리하는 태도까지 아우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준비는 임종을 앞둔 이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노년기 전반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생애교육의 한 축이다.

문제는 실제 죽음준비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3년 노인실태조사」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죽음준비 행동은 8개 항목 가운데 평균 약 1개에 그쳤다(Ko, 2026). 여기서 8개 항목은 죽음준비교육 수강, 유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방법 결정, 묘지 및 납

골당 준비, 수의 준비, 장기기증 서약, 상속 준비로, 법적, 물리적, 관계적, 학습적 영역에 걸친 이질적 행동들이다(Ko, 2026). 이 간극은 죽음준비가 정보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을 대면하는 일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곧 죽음준비의 문제는 정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의미의 문제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교육의 과제가 발생한다.

5. 종교성과 웰다잉

종교는 인간이 삶과 죽음을 초월적 지평에서 해석하도록 도우며, 죽음의 불안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 종교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죽음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죽음불안 수준도 낮게 보고되며(Han, 2007), 종교활동이 제공하는 공동체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은 우울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Koenig, 2012). 국내 대규모 자료 분석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 노인이 무종교 노인보다 죽음준비와 웰다잉 인식 수준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으며(Ko, 2026), 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노인의 웰다잉 돌봄을 검토한 최근 논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Yoo & Ahn, 2026).

다만 이러한 관련성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횡단자료에 기초한 상관관계는 인과의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며, 신앙공동체 참여가 곧 교육적 효과의 증거인 것도 아니다. 이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죽음을 해석하는 고유한 언어를 지니며 그 언어가 신앙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남는 물음은 그 언어가 어떤 내용과 구조를 지니며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이며, 이는 통계가 아니라 신학과 교육학의 언어로 답해야 할 물음이다.

6. 노년기 웰다잉의 교육적 과제

이상의 검토에서 세 가지 교육적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죽음준비를 실무적 항목의 완수로 축소하지 않고 노년기 삶 전체를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죽음불안의 감소를 유일한 성과 지표로 삼지 않고, 죽음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노인을 돌봄의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정리하고 전수하는 학습자이자 증언자로 세워야 한다. 이는 노년기를 고유한 소명의 시기로 이해하려는 최근의 기독교교육 논의와 같은 방향에 놓인다(Kim, 2024). 이 세 과제는 모두 죽음교육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라는 목적의 물음으로 수렴되며, 그 답을 위해서는 죽음 자체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창조와 유한성, 그리고 미화되지 않는 죽음

기독교의 죽음 이해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Gen 2:7), 그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Ps 31:15). 이러한 이해는 유한성을 결핍이나 실패가 아니라 피조물의 정상적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Ps 90:12)라고 기도할 때, 유한성의 자각은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지혜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자기결정 중심의 웰다잉 담론이 죽음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 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다면, 기독교적 이해는 그러한 선택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유한성 자체를 인간 존재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동시에 성경은 죽음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며(Rm 5:12), 여전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1Cor 15:26)로 규정된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두려움은 신앙의 미숙함이 아니라 죽음이 본래 원수라는 사실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다. 교회가 노인의 죽음불안이나 우울을 ‘믿음이 부족한 결과’로 해석할 경우, 그 해석은 위로가 되기보다 또 하나의 짐이 된다. 죽음의 부정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소망의 언어가 값싼 위로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조건이다.

2. 죽음의 기술(ars moriendi)과 평생의 죽음준비

기독교 전통은 오래전부터 ‘잘 죽는 법’을 신앙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 왔다. 청교도 퍼킨스(W. Perkins)의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이 그 대표적인 예다(Park, 2017). 이 전통에서 행복한 죽음(ars moriendi)은 행복한 삶(ars vivendi)을 전제한다. 곧 잘 죽는 일은 임종의 순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영적 훈련의 열매다.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memento mori)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전통이 오늘의 죽음교육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죽음준비란 죽음의 시기와 방식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성숙의 과정이다. 자기결정 패러다임이 죽음의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관리 가능성을 강조한다면, 죽음의 기술 전통은 죽음을 신앙 안에서 ‘맞이’하도록 사람을 준비시킨다. 나아가 이 전통은 죽음교육이 임종 임박기의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년기 전체, 나아가 생애 전체에 걸친 신앙교육의 일부여야 함을 시사한다. 죽음 묵상을 심리적 적응 기술이 아니라 삶의 형성을 재조직하는 영적 훈련으로 개념화하려는 최근의 시도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Yoon, 2026).

3. 부활과 종말론적 소망

죽음의 기술 전통이 죽음을 향한 신자의 태도를 형성한다면, 그 태도가 근거하는 토대는 부활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이미 꺾였으며(1Cor 15:54-57), 죽음의 세력 아래 종노릇하던 이들은 그 공포에서 해방된다(Heb 2:14-15). “다시는 사망이 없고”(Rev 21:4)라는 약속은 죽음을 인간이 관리해야 할 최종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 내실 눈물의 자리로 재해석한다.

이 소망을 가장 깊이 전개한 신학자가 몰트만(J. Moltmann)이다. 그의 『희망의 신학』에서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근거하며, 바로 그 근거 위에서 현재를 변혁하는 힘으로 작동한다(Moltmann, 1967). 김정형이 분석하듯 몰트만의 종말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도래하시는 하나님’(adventus)의 사건으로 이해된다(Kim, 2012). 종말은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도달하는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로 다가오시는 때를 가리킨다. 자기결정 패러다임에서 미래가 예측하고 장악해야 할 대상이라면, 몰트만의 소망에서 미래는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약속이다. 따라서 기독교 죽음교육의 목표는 노인이 죽음을 예측하고 통제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남은 삶을 다시 살아 내도록 돕는 데 있다.

4. 기독교적 웰다잉의 의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독교적 웰다잉은 네 요소로 정리된다. 첫째, 유한성을 부정하지 않고 피조물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죽음이다. 둘째, 죽음의 부정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 권세가 꺾였음을 고백하는 죽음이다. 셋째, 평생에 걸친 영적 훈련의 열매로서 준비되는 죽음이다. 넷째, 통제의 성취가 아니라 도래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위탁의 죽음이다.

이 네 요소는 자기결정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좋은 죽음의 궁극적 기준으로 절대화하지 않으며,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신앙적 위탁의 지평으로 확장한다. 곧 기독교적 웰다잉에서 자기결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고 재배치된다. 그리고 이 재배치가 노년기 죽음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한다. 죽음교육의 성과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죽음준비 항목을 완수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신앙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게 되었는가로 가늠된다.

Ⅳ. 노년기 웰다잉을 위한 기독교 죽음교육의 재구성

‘재구성’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재구성의 대상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검토한 국내 기독교 죽음교육 논의는 강조점에 따라 네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성경적 죽음 이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교리 전달의 경향(K. H. Choi, 2024), 일반 죽음준비교육의 구조 위에 신앙적 요소를 더하여 죽음불안의 감소를 성과로 삼는 심리 적응의 경향(Lee, 2014), 예배와 의례를 통해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 통과하도록 돕는 의례와 공동체의 경향(Kim, 2025; Kim, 2019), 죽음 묵상을 영적 훈련으로 개념화하는 영성 훈련의 경향(Yoon, 2026; Park, 2017)이 그것이다. 각 경향은 고유한 강점을 지니지만, 검토한 문헌들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교육의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 병렬되어 있고 노년기의 발달적 특수성과 오늘의 죽음 담론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공통 과제가 확인된다.

앞 장에서 확인한 기독교적 죽음 이해는 이 공통 과제에 응답하여 노년기 죽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본 장은 그 재구성을 네 가지 이행의 원리로 제시한다. 각 원리는 위의 네 경향이 서 있던 자리를 부정하기보다, 그 강점을 이어받으면서 그 자리를 신앙의 지평 안에 다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제안된다.

1. 죽음 회피에서 죽음 인식으로

첫 번째 원리는 죽음을 회피와 금기의 영역에서 인식과 대면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격리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주로 장례 예식의 순간에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었다. 그 결과 노인은 자신의 죽음을 말할 언어를 갖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기독교 죽음교육의 첫 과제는 이 침묵을 깨고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교육 안에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 인식은 단순한 정보 제공과 구별된다. 임종 과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가 형성되지 않는다. 기독교 죽음교육이 묻는 질문은 “죽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곧 죽음 인식은 인지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신앙적 자각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 교육은 건강이 악화된 이후가 아니라 노년기 초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생애회고에서 신앙적 의미재구성으로

두 번째 원리는 생애회고를 신앙적 의미재구성의 과정으로 심화하는 것이다. 생애회고(life review)는 노년기 교육과 상담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에릭슨(E. H. Erikson)이 노년기의 발

달과제로 제시한 자아통합 개념도 이러한 회고의 의미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일반적 생애회고가 삶의 성취와 실패를 균형 있게 수용하는 데서 멈춘다면, 기독교 죽음교육에서 생애회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독교적 생애회고는 노인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지평에서 다시 읽도록 돕는다. 실패는 단순히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으로 고백되고, 성취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재서술되며, 후회는 회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 과정이 상담적 개입이 아니라 교육적 성찰로 설계된다는 사실이다. 노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발견할 때, 개인의 생애는 공동체가 함께 읽는 신앙의 텍스트가 된다. 물론 회고 과정에서 깊은 상처나 우울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담적 돌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교육과 상담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에 놓인다.

3. 관계적 단절에서 화해와 공동체성으로

세 번째 원리는 죽음준비를 개인의 심리적 과제에서 관계적, 공동체적 과제로 확장하는 것이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사건이다. 죽어 가는 이는 관계로부터 분리되며, 남은 이들은 그 분리를 애도한다. 구체적으로 이 원리는 세 층위의 관계를 다룬다. 첫째는 가족과의 관계다. 오래 묵은 갈등, 표현되지 못한 감사, 미처 구하지 못한 용서는 노년기의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다. 둘째는 신앙공동체와의 관계로, 교회는 죽어 가는 이의 삶을 함께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다. 노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때, 죽음준비는 소멸의 준비가 아니라 전수의 행위가 된다.

이 관계적 차원은 기독교 죽음교육이 지닌 공동체적 성격을 드러낸다. 교회는 죽음과 고통을 견디는 법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이며(Hauerwas, 1986), 죽음 앞에서 홀로 강해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며 함께 견디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죽음을 신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웰다잉을 위한 기독교 의례를 기억과 스토리텔링, 화해, 성만찬을 중심으로 구성하려는 제안 역시 이러한 공동체적 동행을 구조화하는 한 방식이다(Kim, 2025).

4. 죽음불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네 번째 원리는 죽음교육의 최종 지향을 죽음불안의 감소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 형성에 두는 것이다. 이 지점이 일반 죽음교육과 기독교 죽음교육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일반 죽음교육이 죽음의 수용과 삶의 의미 발견을 목표로 한다면, 기독교 죽음교육은 이를 넘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해석하도록 돕는다.

이 차이는 교육 성과의 기준을 바꾼다. 죽음불안의 감소는 기독교 죽음교육의 부수적 결과일 수는 있어도 그 목적일 수는 없으며, 신앙 안에서 죽음을 정직하게 대면할수록 일시적으로 불안이 깊어지는 국면도 있을 수 있다. 기독교 죽음교육이 묻는 것은 “불안이 얼마나 줄었는가”가 아니라 “그 불안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게 되었는가”이다. 자기 통제력만을 붙들 경우 그 붙듦은 통제력이 소진되는 지점에서 함께 무너지지만,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 경우 그 붙듦은 통제력의 상실 가운데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추상적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노인이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를 이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도록 돕는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5. 네 원리의 통합적 구조

이 네 원리는 병렬적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형성 과정을 이룬다. 죽음 인식은 교육이 시작되는 자리를 열고, 신앙적 의미재구성은 지나온 생애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읽게 하며, 화해와 공동체성은 그 읽기를 관계의 지평으로 확장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전체 과정이 향하는 목적지를 제시한다. 곧 첫째 원리가 어디서 시작하는가를, 둘째와 셋째 원리가 무엇을 다루는가를, 넷째 원리가 무엇을 향하는가를 규정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년기 죽음교육을 기능적 훈련이 아니라 신앙 형성(formation)의 한 국면으로 자리매김하며, 기독교교육이 지향해 온 신앙 형성의 과제가 생애 마지막 국면에서 구체화된 형태임을 보여 준다.

Ⅴ. 교회 노인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언

앞 장에서 제시한 네 원리는 교회의 노인교육 안에서 구체적 형태를 갖출 때 비로소 실효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 실천 방안으로 제안한다.

1.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첫째, 죽음교육을 교회 노인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네 원리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도입 단계에서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전개 단계에서 생애회고와 신앙적 재해석을 다루며, 심화 단계에서 관계의 화해와 세대 간 전수를 시도하고, 결론 단계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성경 본문과 함께 확인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동시에 실제적, 법적 죽음준비도 통합되어야 한다. 한국 노인의 실제 죽음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Ko, 2026: 98-1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유언, 장례 의향 결정, 가족

과의 진솔한 대화를 안내하고 동행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항목은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위탁의 훈련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며,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릴 것인가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2. 생애회고와 신앙 이야기

둘째, 생애회고를 신앙 이야기의 형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이 자신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증언하도록 돕는 것으로, 생애 곡선 그리기, 감사 목록 작성, 신앙 전환점 나누기, 후대에게 남기는 편지 쓰기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교회의 신앙 유산으로 축적할 때, 죽음준비는 개인의 정리 작업에서 공동체의 기억 형성으로 확장된다. 이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증언자로 세우는 관점의 전환이며, 노년기의 소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시키려는 기독교교육의 과제와도 맞닿는다(Kim, 2024).

3. 가족과 세대를 통합하는 죽음준비

셋째, 죽음준비교육을 노인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과 세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관한 대화는 노인 혼자만의 준비로 완결되지 않으며, 가족과의 상호 이해가 전제될 때 실질적 준비가 된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죽음준비 세미나, 세대 간 신앙 이야기 나눔, 가족 단위의 유산 정리 워크숍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조부모 세대의 죽음을 통해 처음으로 죽음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가 이 만남을 교육적으로 준비시킬 때 죽음교육은 노인교육의 한 항목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독교교육의 주제가 된다.

4. 예배와 성경교육의 연계

넷째, 죽음교육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예배와 성경교육에 연계해야 한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는 본래 교회의 예배와 성례 안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몸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종말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며, 장례 예식은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고백하는 자리다. 성경교육의 차원에서는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본문을 노인 성경공부의 주요 주제로 편성하되, 교리적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노인이 그 본문 안에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위치시키도록 돕는 해석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성경적 죽음 이해를 정기적으로 다루려는 설교의 시도와(K. H. Choi, 2024) 노인교육이 유

기적으로 연결될 때, 죽음의 언어는 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언어가 된다.

5. 목회자, 기독교교육자, 상담자의 협력

다섯째, 죽음교육은 한 사람의 전문성만으로 감당되기 어려우며 협력 구조를 요청한다. 목회자는 죽음과 부활의 신학적 언어를 제공하고, 기독교교육자는 그 언어를 노년기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며, 기독교상담자는 교육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울과 상실, 관계적 상처를 다룬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교육이 의료와 학교의 영역에만 맡겨질 수 없으며 종교가 고유하게 기여할 몫이 있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Becker, 2004). 임종의 국면에서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돌봄과의 연계도 필요하다(Kwon, 2017). 특히 우울 고위험군의 식별과 연계는 교육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므로, 교회 안에 목회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으로 이어지는 돌봄 경로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여성 노인과 저학력 노인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경험적 보고를 고려할 때(Ko, 2026), 교회의 노인교육은 취약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죽음교육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죽음 이해의 사상적 흐름을 검토한 위에서, 노년기 웰다잉과 죽음준비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재고찰하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부활의 소망에 기초하여 노년기 기독교 죽음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년기 웰다잉에 관한 기존 논의는 관계와 의미, 영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자기결정을 중심에 두는 흐름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죽음의 비인간화에 대한 정당한 저항에서 비롯되었으나, 통제를 좋은 죽음의 유일한 기준으로 절대화할 때 통제력을 가장 적게 가진 이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노년기의 죽음불안은 청년기보다 오히려 낮으며 자아통합의 수준에 좌우된다는 경험적 보고와, 한국 노인의 실제 죽음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노년기 죽음교육의 초점이 불안의 완화가 아니라 생애의 통합과 태도의 형성에 있어야 함을 보여 준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창조와 유한성, 죄와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지평에서 이해한다. 이 이해에서 좋은 죽음이란 잘 통제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위탁하며 맞이하는 죽음이며, 이때 자기결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되고 재배치된다. 이 이해는 죽음을 개인의 사건으로 가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상적 전환과 만나되,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보존되는 부활의 소망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구별된다.

셋째,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죽음 회피에서 죽음 인식으로, 생애회고에서 신앙적 의미재구성으로, 관계적 단절에서 화해와 공동체성으로, 죽음불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네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들은 시작과 내용과 목적지를 규정하는 하나의 형성 구조를 이룬다. 아울러 교회 노인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생애회고와 신앙이야기, 가족과 세대를 통합하는 죽음준비, 예배와 성경교육의 연계, 전문 인력의 협력이라는 다섯 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죽음불안의 감소라는 심리적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을 신앙 형성이라는 기독교교육 고유의 지평에서 재정위하고, 일반 죽음교육과의 차이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지점에서 명확히 하였으며, 선행 실증연구가 보여 준 관련성을 교육적 과제로 번역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이론 연구를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문헌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로서 제시한 원리와 실천 방안의 교육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고, 논의의 범위를 개신교 전통에 두었기에 타 종교 전통의 자원과의 비교 검토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네 원리에 기초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노인의 하나님 이해와 영적 안녕감 및 웰다잉 인식의 관계 분석, 죽음준비를 행동적 차원과 영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척도 개발이 요청된다.

웰다잉 교육은 결국 잘 죽기 위한 준비이기에 앞서, 지금 남아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초고령사회의 한복판에서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기독교교육이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References

[Abbreviations]

Gen : Genesis
Ps : Psalm
Rm : Romans
1Cor : 1 Corinthians
Heb : Hebrews
Rev : Revelation

[Primary Sources]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1998).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eoul: Korean Bible Society.

[Secondary Sources]

Ariès, P. (1974). *Western Attitudes toward Death: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ecker, C. (2004). Death Education and Religion in Schools and Moder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22.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Cho, E. H. (2023). Well-Dying: Assisted Justice Act as a Dignified and Happy 'Right to Self-Determination'. *Korean J Health Commun, 18*(1), 1-5.

Cho, E. H. (2025). Well-Dying and The Assisted Justice Act: A System for Social Value and Death with Dignity. *Korean J Health Commun, 20*(1), 1-7.

Choi, H. J. (2024). Defamiliarizing Self-Determination on Death: Governance of Death and Concealed Desir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4*(3), 16-27.

Choi, K. H. (2024). A Study on Preaching Methods Preparing for Biblical Death. *The Gospel and Praxis, 72*, 11-43.

Eom, S. Y. (2025). A Study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death & Article 252 of the Criminal Code. *Democratic Legal Studies, 88*, 237-267.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5), 387-411.

Ha, J. S. (2019).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the Resources of Practical Theology. *The Gospel and Praxis, 52*, 232-266.

Han, Y. R. (2007). Subjective Health Status, Religiosity and Fear of Death of the Elderly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3), 400-409.

Hauerwas, S. (1986). *Suffering Presence: Theological Reflections on Medicine, the Mentally Handicapped, and the Church*.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 Macquarrie & E.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Kang, T. W. (2024). A Study on the Dignified Death of a Patient with Terminal Dementia. *Kangwon Law Review, 76*, 1-46.

Kim, E. S. (2024). The Vocation of the Elderly and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es Based on Human Development: An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through Joyce Ann Mercer's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9*, 43-60.

Kim, H. R. (2025). A Study for Constructing Christian Ritual for Well-Dying. *Theology and Praxis, 96*, 37-62.

Kim, H. T. (2026). A Study on the Legal and Ethical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 Death with Dignity. *HUFS Law Review, 50*(1), 1-22.

Kim, J. H. (2012). Advent-like Future as the Temporality of the Eschaton: A Study of Jürgen Moltmann's Concept of the Eschatological Future.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34*, 37-66.

Kim, N. Y.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times, the role of the church for death and dyi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239-273.

Kim, S. H., & Song, Y. M. (2013).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ath Anxie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190-219.

Ko, K. J. (202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religious activity, depression, death preparation, and well-dying awareness in Korean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86*, 87-109.

Koenig, H. G. (2012). Religion, Spirituality, and Health: The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ISRN Psychiatry, 2012*, 1-33.

Kwon, J. S. (2017). The Spiritual Pilgrimage of The Dying: Hospice-Palliative Care as a Form of Soulful Pastoral Care. *Theology and Praxis, 57*, 155-186.

Lee, E. K. (2017). Children's story of Death as a Text of Religiou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1*, 299-327.

Lee, E. S. (2014). Preparing and Educating the Elderly on Death and Problems the Church Fac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387-419.

Lee, J. Y. (2004).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 39-56.

Lee, S. Y. (2020). Biopolitics and the Right to Die: A Legal Discourse regarding Euthanasia.

Law Review, 61(2), 257-282.

Moltmann, J. (1967). *Theology of Hope: On the 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a Christian Eschatology*. Translated by J. W. Leitch. London: SCM Press.

Oh, J. T., & Kim, C. G. (2009).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Attitude toward Death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51-69.

Park, T. H. (2017). Puritan Spirituality on Death: with reference to ars moriendi of W. Perkins. *The Gospel and Praxis, 44*, 143-191.

Russac, R. J., Gatliff, C., Reece, M., & Spottswood, D. (2007).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31*(6), 549-561.

Song, Y. M., & Yoo, K. (2011). A study on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4*, 111-134.

Statistics Korea (2025). 2025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Translated in English) Statistics Korea (2025). *2025 Statistics on the Aged*. Daejeon: Statistics Korea.

Wass, H. (2004).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28*(4), 289-308.

Yoo, E. J., & Ahn, T. Y. (2026). Well-dying Care for the Elderly from a Christian Cultural Perspective: A Literature Review. *Emotion Focused Psychology Coaching & Emotion Focused Therapy: EFPC & EFT, 2*(1), 125-146.

Yoon, O. H. (2026). A Christian Educational Perspective on How Contemplating Death Influences Lif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85*, 105-124.